



책임있는 부모됨

이성웅 세례자 요한 신부 | 대구대교구



얼마 전에 가톨릭재단 유치원에 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미사 후 유치원 원장님과 대화를 나누었는데, 대화의 주제는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였습니다. 원장님께서서는 부모님들 중에서 어린 자녀와 같이 이 드라마를 보신 분들이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체육복 차림으로 유치원에 보내는 부모님도 계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아이들이 시청을 할 수 없는 드라마인데, 부모님이 함께 보았다니... 사실 이 유치원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어린아이들이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유니폼을 입고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드라마에는 아이들이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장면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시청 지도가 필요합니다.

요즘 인터넷과 SNS가 발달하면서 우리 아이들은 무방비로 미디어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중매체는 우리 아이들에게 올바른 성(性) 지식과 가치관을 전달해 주지 않습니다. 왜곡된 성(性) 지식과 가치관을 가진 아이들은 잘못된 성적 결단을 내릴 위험성이 더 커집니다. 요즘 뉴스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성적인 범죄들이 그 결과들이 아닐까 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님들의 책임 있는 가르침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학교와 교회에서 성교육이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자녀들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자녀들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부모님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성(性)을 직접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성(性)을 지니고 태어나서, 그 남성성과 여성성을 가지고 사랑을 해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출산함으로써 아가페적인 헌신적인 무조건적인 사랑을 실제로 사시는 분들이 바로 부모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성교육 교사는 부모님이십니다. 따라서 부모님들이 우선 올바른 성(性)에 대한 개념과 가치관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녀들과 원만한 소통을 통해서 성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가톨릭교회에는 틴스타라는 훌륭한 성(性) 정체성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처음에는 10대 청소년들을 위해서 마련되었지만, 지금은 성인들을 위한 내용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부모님들께서 먼저 올바른 성(性)에 대한 가르침을 배우시고, 그 성(性)을 살아가시면서 자녀들에게도 그 가르침을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주 고가의 도자기를 하나 구입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만약에 누군가가 그 도자기에 금이 가게 했다면 아주 기분이 언짢아지겠죠? 깨끗하고 섬세한 도자기에 보기 싫은 금이 갔으니 기분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비싸고 깨끗한 도자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가치가 있고 순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녀들의 영혼입니다. 앞서 ‘오징어 게임’의 예를 들었지만 대중매체가 묘사하는 왜곡된 성(性)의 모습이 맑고 순수한 우리 아이들의 영혼에 흠집을 내고 있습니다. 성(性)과 인격이 경시되는 우리 사회에 올바른 성(性)과 사랑에 대한 가르침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전하는 출발점은 바로 가정이 되어야 하고, 그러므로 책임 있는 부모님의 역할이 중요합니다.